

EBS 변형 문제

O.V.S

[OVER VICTORY EBS]

고전 운문편

유대종, 강세진 저

EBS 변형 문제

# O.V.S

[OVER VICTORY EBS]

## 고전 운문편

### i n d e x

1. 구간 등, 〈구지가〉	6
2. 작자 미상, 〈해가〉	7
3. 박인로, 〈누항사〉	9
4. 주세붕, 〈오륜가〉	12
5. 정철, 〈어와 동량재를~〉	14
6. 이원익, 〈고공답주인가〉	15
7. 백수 광부의 아내,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	18
8. 작자 미상, 〈서경별곡(西京別曲)〉	20
9. 득오, 〈모죽지랑가(慕竹旨郎歌)〉	23
10. 작자 미상, 〈동동(動動)〉	25
11. 충담사, 〈안민가(安民歌)〉	29
12. 정인지 외,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31
13. 한림제유, 〈한림별곡(翰林別曲)〉	34
14. 작자 미상, 〈감군은(感君恩)〉	36
15. 이개, 〈방 안에 헛는 족불~〉	39
16. 황진이, 〈어저 내 일이야~〉	41
17. 어느 궁녀, 〈압 못세 든 고기드라~〉	43
18. 이현보, 〈어부단가(漁父短歌)〉	45

19. 이이,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	<b>48</b>
20. 윤선도, 〈견회요(遣懷謠)〉	<b>54</b>
21. 작자 미상, 〈나모도 돌도~〉	<b>57</b>
22. 작자 미상, 〈식어마님 머느라기~〉	<b>59</b>
23.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b>61</b>
24. 허난설헌, 〈규원가(閨怨歌)〉	<b>68</b>
25. 박인로, 〈선상탄(船上嘆)〉	<b>74</b>
26. 한산거사, 〈한양가(漢陽歌)〉	<b>80</b>
27. 홍순학, 〈연행가(燕行歌)〉	<b>84</b>
28. 작자 미상, 〈논매기 노래〉	<b>90</b>
29. 작자 미상, 〈유산가(遊山歌)〉	<b>95</b>
30. 이색, 〈부벽루(浮碧樓)〉	<b>101</b>
31. 최명길, 〈춘설유감(春雪有感)〉	<b>103</b>
32. 정약용, 〈고시(古詩) 7〉	<b>104</b>
33. 작자 미상, 〈정읍사(井邑詞)〉	<b>106</b>
34. 작자 미상, 〈덴동 어미 화전가〉	<b>108</b>
35. 송순, 〈면양정가(俛仰亭歌)〉	<b>111</b>
36. 신희, 〈방옹시여(放翁詩餘)〉	<b>115</b>
정답	<b>118</b>

## 교재 활용법!

안녕하세요^^

교재를 어떻게 하면 알차게 활용할까 궁금해질 것 같아서

이렇게 교재를 활용하는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고전은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특히 막막할 때가 많은데다가,

어떤 참고서를 이용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든 교재가 바로 'OVS 고전 운문'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해석된 내용만 읽으면 절대 해석력을 기를 수가 없어요.

다음의 순서를 따라서 고전을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시 해석력을 UP! UP!

1. 시 해석을 절대 보지 말 것!
2. 시 작품을 3번 정도 읽으며 모르는 부분을 체크할 것!
3. 모르는 부분을 위주로 '현대역'과 비교해 볼 것!
4. 모르는 한자어, 고어 등을 정리하면서 공부할 것!
5. S(제목), BL(빈칸채우기), E(감정선), R(반복, 전환, 끝), 수식+피수식, 대비, 개념어 순으로 내용을 해석하며 정리할 것!
6. 문제를 풀 것!
7. 최종적으로 시 해석을 읽으면서 자기와 해석이 다른 부분을 체크할 것!

이상이에요.

자, 예를 들어 줄게요~.

이 몸이 주겨주겨 일백 번(을) 고쳐 주겨(죽어)  
백골(白骨)이 진토(塵土)되어 낙시라도(낙이라도) 있고 입고  
남(을) 향한 일편단심(一片丹心)이야 가실 줄이 이시라. (있는가?)  
- 정몽주, <이 몸이 주겨주겨>

- S : 시조는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안 적을 거예요.
- BL : 해당 본문에 적어요.
- E : 의지
- R : 단어의 반복
- 수식 + 피수식 : 일편단심은 임을 향함.
- 대비 : 없음. (그런가? 일단 없어 보임.)
- 개념어 : 반복? 과장? 충심?

이렇게 하면 되어요. 최대한 학생의 입장에서 썼는데요~ BL은 본문에 다가 적어도 되고요~ 꼭 정확하게 적을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시를 읽고 고민해 보고, 스스로가 해석하는 데에 있어요.

그리고 한자어에 체크해 두어서, 모르는 한자어는 공부를 해 두고요. (고전 운문은 중복되는 한자어도 많아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해석력이  
늘어요.)

자기 스스로 현대역을 써 보면 더욱 좋죠. (괄호 참고)

그리고 해당 해석본과 더불어서 유대중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다면 더욱 UP! UP!

또 보충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강세진 선생님께 질문해 주세요.~

오늘도 언제나 즐겁게 공부를 합시다!

고전 운문 작품

## 1. 구지가 - 구간 등

거북아 거북아	龜何龜何
머리를 내어라.	首其現也
내어 놓지 않으면	若不現也
구워서 먹으리.	燔灼而喫也

- S :
- BL :
- E :
- R :
- 수식 + 피수식 :
- 대비 :
- 개념어 :

1. '명령-위협'의 구조가 반복되어 나타난다. (○, ×)
2.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애정을 보이고 있다.(○, ×)
3. 의인화된 청자에게 자신이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 ×)

### 시 해석 1. 구지가 - 구간 등

- |              |       |
|--------------|-------|
| 1. 거북아 거북아   | 龜何龜何  |
| 2. 머리를 내어라.  | 首其現也  |
| 3. 내어 놓지 않으면 | 若不現也  |
| 4. 구워서 먹으리.  | 燔灼而喫也 |

- 현대역**
1. 거북아, 거북아(거북이는 신령스러운 존재)
  2. 너의 머리를 내어 놓아라.
  3. 만약, (너의 머리를) 내어 놓지 않으면
  4. 너를 구워서 먹겠다.

**해석** 화자는 거북이에게 '머리'를 내어 놓으라고 한다. '머리'는 '거북이의 생명' 또는 '우두머리' 정도로 해석이 되는 데,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이 시는 '부름 - 명령 - 가정 - 위협'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생명'이든, '우두머리'이든 화자가 간절히 바라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즉, 신령스러운 존재인 거북이에게 화자의 바람과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2. 해가 – 작자 미상

거북아 거북아 수로 부인을 내어라.  
 남의 아내를 앗은 죄 얼마나 크냐.  
 네 만약 어기어 내놓지 않으면  
 그물을 넣어 잡아 구워서 먹으리.

龜乎龜乎出水路  
 掠人婦女罪何極  
 汝若悖逆不出獻  
 入網捕掠燔之喫

• S :

• BL :

• E :

• R :

• 수식 + 피수식 :

• 대비 :

• 개념어 :

1.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성취한 화자의 기쁨을 드러내고 있다. (○, ×)
2. 화자는 개인적인 일보다 공적인 일에 관심이 있다. (○, ×)
3. 화자가 거북을 위협하는 이유가 2행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 ×)
4. 화자와 수로 부인의 대화를 통해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
5. 자연물의 소중함을 예찬적인 어조로 드러내고 있다. (○, ×)

**시 해석 2. 해가 - 작자 미상**

- |                        |         |
|------------------------|---------|
| 1. 거북아 거북아 수로 부인을 내어라. | 龜乎龜乎出水路 |
| 2. 남의 아내를 앗은 죄 얼마나 크냐. | 掠人婦女罪何極 |
| 3. 네 만약 어기어 내놓지 않으면    | 汝若悖逆不出獻 |
| 4. 그물을 넣어 잡아 구워서 먹으리.  | 入網捕掠燔之喫 |

- 현대역**
1. 거북아, 거북아 수로 부인을 내어 놓아라.
  2. 남의 아내(=수로 부인)를 빼앗은 죄 얼마나 큰지 아느냐?
  3. 만약, 수로 부인을 내어 놓지 않으면
  4. 그물에 거북이 너를 넣어, 잡아 먹겠다.

**해석** 화자는 '수로 부인'을 내어 놓으라고 거북이에게 명령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수로 부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구지가>와 마찬가지로, '부름 - 명령 - 가정 - 위협'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작품은 신령스러운 존재인 거북이에게 자신의 아내를 돌려받으려는 화자의 간절함이 드러나는 시이다. 참고로, <구지가>는 왕을 구하는 장면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공적인 면이 강한 시인 반면, <해가>는 수로 부인을 구하기 위한 바람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사적인 면이 강한 시이다.



### 3. 누항사 - 박인로

무상한 이 몸에 무슨 지취(志趣) 있으련만  
 두 세 이랑 발논을 다 목혀 던져 두고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굶을망정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뤄 말겠노라.  
 내 빈천(貧賤) 싫게 여겨 손 헤친다 물러가며,  
 남의 부귀(富貴) 부러이 여겨 손을 친다 나아오라?  
 인간 어느 일이 명 밖에 생겼으리?  
 가난타 이제 죽으며 부유하다 백 년 살랴?  
 원현이는 몇 날 살고 석승이는 몇 해 살았나?  
 빈이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하건마는  
 내 생애 이러하되, 설운 뜻은 없노매라.  
 단사표음(簞食瓢飲)을 이도 죽히 여기노라.  
 평생 한 뜻이 온포에는 업노매라.  
 태평 천하에 충효(忠孝)를 일을 삼아  
 화형제(和兄弟) 신봉우(信朋友) 그르달 이 뉘 있으리?  
 그 밖에 남은 일이야 생긴 대로 살겠노라.

• S :  
 • BL :  
 • E :  
 • R :  
 • 수식 + 피수식 :  
 • 대비 :  
 • 개념어 :

1. 경제적으로 궁핍한 화자의 상황이 나타나 있다. (○, ×)
2. 화자는 자신의 상황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
3. 윤리적인 덕목은 화자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다. (○, ×)
4. 설의적인 표현을 반복하여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 ×)
5. '단사표음'을 통해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화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 ×)
6. '원현'과 '석승'은 화자와 달리 풍요로운 삶을 살아 왔다. (○, ×)
7. <보기> **피시명** '그 밖에 남은 일'은 세속적인 이익을 좇는 일로 정계로 진출하고자 하는 작가의 욕망이 담겨 있는 구절이군. (○, ×)

**시 해석 3. 누항사 - 박인로**

1. 무상한 이 몸에 무슨 지취(志趣) 있으려만
2. 두 세 이랑 밭논을 다 묵혀 던져 두고
3.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굶을망정
4.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뤄 말겠노라.
5. 내 빈천(貧賤) 싫게 여겨 손 헤친다 물러가며,
6. 남의 부귀(富貴) 부러이 여겨 손을 친다 나아오라?

- 현대역**
1. 보잘것없는 이 몸이 무슨 의지와 취향(=지취)이 있을까?
  2. 두세 이랑 되는 밭과 논을 (제대로 농사를 짓지 못한 채) 다 묵혀 던져두고,
  3. (곡식이라도) 있으면 죽이라도 해 먹고, 없으면 굶어 죽을 망정
  4.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으려고 한다.
  5. 나의 가난하고 천함(=빈천)을 싫다고 여겨, 손을 휘젓는다고 하여 그 가난이 물러가며
  6. 남의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음(=부귀)을 부럽게 여겨 손으로 부른다고 내 살림이 나아지는가?

**해석** 화자는 자신을 보잘것없다고 말하면서, '두 세 이랑 되는 밭과 논'은 전부 던져두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자고 말하고 있다. 화자는 농사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데, 이 부분은 그에 따른 화자의 생각이라 할 수 있겠다. 빈궁한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가난함을 수용하고 부귀에 대한 부러움을 멀리 하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나타난다.

7. 인간 어느 일이 명 밖에 생겼으리?
8. 가난타 이제 죽으며 부유하다 백 년 살랴?
9. 원현이는 몇 날 살고 석승이는 몇 해 살았나?
10. 빈이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하건마는
11. 내 생애 이리하되, 설운 뜻은 없노매라.
12. 단사표음(簞食瓢飮)을 이도 죽히 여기노라.

- 현대역**
7. 인간 세상의 어느 일이 명(命) 바깥에 있겠는가?
  8. 가난하다고 해서 빨리 죽고, 부유하다고 해서 백 년 이상 살겠는가?
  9. (생각을 해 보아라) 원현이라는 사람을 몇 날을 살았고, 석승이라는 사람은 몇 해를 살았는가?
  10. 가난하면서도 원망하지 않음이 어렵다고 말하는데
  11. 내 생애가 이리하지만, 서러운 마음은 없다.
  12. 단사표음(=대나무로 만든 밥그릇에 담은 밥과 표주박에 든 물이라는 뜻으로, 청빈하고 소박한 생활을 이르는 말)도 만족하며 살려고 한다.

**해석** 화자는 모든 일이 '인간의 명'과 관련이 있다고 말을 한다. 가난하다고 하여 빨리 죽는 법도 없고, 부자라고 하여 오래 산다는 법도 없다고 말이다. 자신의 생애는 비록 가난하지만 원망하거나 서러운 마음 대신에 소박하게 살려 한다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 13. 평생 한 뜻이 온포에는 업노매라.
- 14. 태평 천하에 충효(忠孝)를 일을 삼아
- 15. 화형제(和兄弟) 신봉우(信朋友) 그르달 이 뉘 있으리?
- 16. 그 밖에 남은 일이야 생긴 대로 살겠노라.

- 현대역**
- 13. 평생 내가 정한 뜻은 따뜻하게 입고, 배불리 먹는 데에 있지 않다.
  - 14. (나의 뜻은) 태평스런 세상에 충성과 효도를 일로 삼아,
  - 15. 형제간에 화목하고 벗끼리 신의 있게 사귀는 일에 있는데,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 16. 그 밖의 나머지 일이야 태어난 대로 살아가려 하노라.

**해석** 화자는 자신의 뜻은 '따뜻하게 입고, 배불리 먹는 데(=온포)'에 있지 않다고 말하며, '충효, 화형제, 신봉우'와 같은 가치를 높이 사는 것이 자신의 뜻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물질적으로 가난한 상황은 화자의 정신적인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화자의 굳은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 4. 오륜가 - 주세붕

형(兄)님 자신 젓을 내 조처 머궁이다.  
 어와 더 아우야 어마님 너 스랑이야.  
 형제웃 불화(不和)흐면 개돼지라 흐리라.

〈제5수〉

늘그니는 부모곶고 얼우는 형ㄴ트니,  
 곤툰디 불공흐면 어디가 다랴고,  
 날료셔 ㄴ디어시든 절흐고야 마로리이다.

〈제6수〉

- S :
- BL :
- E :
- R :
- 수식 + 피수식 :
- 대비 :
- 개념어 :

1. 유사한 문장의 구조가 반복되어 나타난다. (○, ×)
2. 가정을 통해 화자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 (○, ×)
3. 윤리적인 덕목을 드러내면서 독자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 ×)
4. 제5수의 '불화'와 제6수의 '불공'은 '개돼지'가 하는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 ×)
5. 화자는 제5수의 '형제'에서 제6수의 '늘그니'와 '얼우'로 화제의 초점을 옮겨 가며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 ×)
6. 제6수에서는 비유를 사용하여 부모와 형이 다툰 때 중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 ×)
7. 대화체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

**시 해석 4. 오륜가 - 주세붕**

1. 형(兄)님 자신 젓을 내 조처 머궁이다.
2. 어와 더 아우야 어마님 너 스랑이야.
3. 형제웃 불화(不和) 하면 개돼지라 흐리라.

〈제5수〉

- 현대역**
1. 형님에게 주신 젓을 나 역시 좇아 먹었습니다.
  2. 아아, 우리 아우는 어머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3. (따라서) 형제가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하면 개돼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해석** 이 시에는 형제 간에 서로 다투지 말고 사이 좋게 지내야 한다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

1. 늘그니는 부모근고 얼우는 형ㄴ트니,
2. 근툰디 불공하면 어디가 다르고,
3. 날료셔 ㄴ디어시든 절하고야 마로리이다.

〈제6수〉

- 현대역**
1. 늙은 사람은 마치 부모님과 같고, 어른은 마치 형과 같으므로,
  2. 이와 같은데, 그들에게 공손하지 않으면, (짐승과) 어디가 다를 것인가?
  3. 나로서는 (늙은 사람과 어른을) 맞이하게 되면 절하고야 말 것입니다.

**해석** 이 시에는 어른을 항상 공격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화자의 당부가 나타난다. 이는 오륜에서 장유유서에 해당한다.

## 5. 어와 동량재를~ - 정철

어와 동량재(棟梁材)\*를 더리 혀야 어이 홀고  
 헐뜨더 기운 집의 의논(議論)도 하도 할샤  
 못 목수 고자(庫子) 자\* 들고 허등대다 말려느다

\* 동량재 : 건축물의 마룻대와 들보로 쓸 만한 재목.

\* 고자 자 : 창고지기가 쓰는 작은 자.

- S :
- BL :
- E :
- R :
- 수식 + 피수식 :
- 대비 :
- 개념어 :

1. 화자의 안타까운 마음이 설의적 표현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 ×)
2. 시선이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며 대상을 관찰하고 있다. (○, ×)
3.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화자가 안타까워하는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 ×)
4. 시적 화자는 '동량재'와 달리 '목수'에 대하여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 ×)
5. '고자 자'는 화자가 바라는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도구이다. (○, ×)

### 시 해석 5. 어와 동량재를~ - 정철

1. 어와 동량재(棟梁材)\*를 더리 혀야 어이 홀고
2. 헐뜨더 기운 집의 의논(議論)도 하도 할샤
3. 못 목수 고자(庫子) 자\* 들고 허등대다 말려느다

- 현대역**
1. 아아, 건축물의 마룻대와 들보와 같이 쓸 만한 재목을 어찌 저렇게 두고 있는가?
  2. 헐뜯어 기울어진 집의 논의가 많기도 많구나.
  3. 무릇 목수가 창고지기가 쓰는 작은 자를 들고 허등대다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구나.

**해석** 이 시에서 '동량재'는 훌륭한 인재를, '기운 집'은 조선의 현실을, '목수'는 이권 다툼만 하는 신하를 뜻한다. 훌륭한 인재를 적시에 쓰지 못하고 당파 싸움만 일삼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드러나고 있다.

\* 동량재 : 건축물의 마룻대와 들보로 쓸 만한 재목.

\* 고자 자 : 창고지기가 쓰는 작은 자.

## 6. 고공답주인가 – 이원익

바깥 별감\* 많이 있어 바깥 마름 달화주\*도  
 제 소임 다 바리고 몸 쓰릴 뿐이로다  
 비 식여 셔근 집을 뉘라셔 곳쳐 이며  
 옷 버셔 문허진 담 뉘라셔 곳쳐 쓸고  
 불한당 구멍 도적 아니 멀니 단이거든  
 화살 촌 수하상직(誰何上直)\* 뉘라셔 힘써 흘  
 고

큰나큰 기운 집의 마누라\* 혼자 안자  
 명령을 뉘 드르며 논의를 놀라 홀고  
 낮 시름 밤 근심 혼자 맛다 계시거니  
 옥 굵튼 얼굴리 편혹실 적 몇 날이리  
 이 집 이리 되기 뉘 타시라 홀서이고  
 험 업는 종의 일은 못도 아니 흐려니와

도로혀 헤여하니 마누라 타시로다  
 닉 주인 외다 헉기 종의 죄 만컨마는  
 그러타 세상 보려 민망하야 사되나이다  
 새끼 쇠기 마르시고 내 말슴 드로쇼셔  
 집일을 곳치거든 종들을 휘오시고  
 종들을 휘오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상벌을 밝히거든 어른 종을 미드쇼셔  
 진실노 이리 헉시면 가도(家道) 절노 닐니이다

- \* 별감 : 사내 하인끼리 서로 존대하여 부르던 말.
- \* 달화주 : 주인집 밖에서 생활하는 종들에게서 주인에게  
 내야 할 대가를 받아 오는 일을 맡아 보던 사람.
- \* 수하상직 : “누구나!” 하고 외치는 상직군.
- \* 마누라 : 상전, 마님 등을 이르는 말.

• S :
• BL :
• E :
• R :
• 수식 + 피수식 :
• 대비 :
• 개념어 :

1. 권유의 어조로 대상이 해야 할 일을 제시하고 있다. (○, ×)
2.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나타난다. (○, ×)
3. 화자는 모든 잘못이 ‘마누라’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 ×)
4. ‘별감’과 ‘달화주’는 ‘종’과 달리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 (○, ×)
5. ‘도적’이 멀리 달아났다는 점을 근거로 ‘종’이 해야 할 일에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 (○, ×)

**시 해석 6. 고공답주인가 - 이원의**

1. 바깥 별감\* 많이 있어 바깥 마음 달화주\*도
2. 제 소임 다 버리고 몸 쓰릴 뿐이로다
3. 비 식여 서근 집을 누라서 곳쳐 이며
4. 옷 버서 문허진 담 누라서 곳쳐 쓸고
5. 불한당 구멍 도적 아니 멀니 단이거든
6. 화살 촌 수하상직(誰何上直)\* 누라서 힘써 홀고

- 현대역**
1. 바깥 별감이 많이 있어, 바깥 마음 달화주도
  2. 제 소임 다 버리고, 몸 사릴 뿐이로다.
  3. 비가 새어 썩은 집을 누가 고쳐 이으며,
  4. 옷을 벗어 무너진 담을 누가 고쳐 쌓아 둘까?
  5. 불한당 구멍 도적(=왜적)이 아직 멀리 달아나지 않았는데
  6. 화살을 찬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수하상직은 누가 힘써 할 것인가?

**해석** 화자는 바깥 별감, 바깥 마음을 언급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자기의 소임을 다 버리고 자기 몸만 사리고 있어 화자는 걱정이 많다. 비가 새어서 집이 썩었는데, 고칠 사람이 없고, 무너진 담을 쌓을 사람이 없다고 말이다. 더구나 적군도 멀리 도망간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침략할 수 있는데, 국방의 의무를 다 한 사람도 없다.

7. 큰나큰 기운 집의 마누라\* 혼자 안자
8. 명령을 누 드르며 논의를 놀라 홀고
9. 낮 시름 밤 근심 혼자 맛다 계시거니
10. 옥 굵튼 얼굴리 편하실 적 몇 날이리
11. 이 집 이리 되기 누 타시라 홀셔이고
12. 험 업는 종의 일은 못도 아니 흐려니와
13. 도로혀 헤여흐니 마누라 타시로다

- 현대역**
7. 크게 기울어진 집에 마누라(=상전)께서 혼자 앉아
  8. 명령을 누가 듣고, 누구와 논의를 할까?
  9. 낮에도 시름, 밤에도 근심, 이 모든 것을 혼자 도맡아 계시는데
  10. 마누라의 옥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인가?
  11. 이 집 이리 된 것을 누구에게 탓을 할 것인가?
  12. 생각 없는 종의 일은 못도 아니하려니와 (물을 필요도 없거니와)
  13. 도리어 생각해보니, 마누라(=상전)의 탓이로다

**해석** 화자는 상전을 걱정한다. 아랫사람들이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않은 것 때문이다. 상전의 명령은 누가 듣고, 상전은 누구와 함께 논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이러한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 상전의 얼굴이 편하진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화자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 이유는 아랫사람도 있지만, 상전의 탓이기도 하다는 점을 짚고 있다. 아직 그 이유는 모른다. 좀더 읽어 보자.



14. 너 주인 외다 헝기 종의 죄 만컨마는
15. 그러타 세상 보려 민망헝야 사되나이다
16. 새끼 쏘기 마르시고 내 말씀 드로쇼셔
17. 집일을 곳치거든 종들을 휘오시고
18. 종들을 휘오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19. 상벌을 밝히거든 어른 종을 미드쇼셔
20. 진실노 이리 헝시면 가도(家道) 절노 날니이다

- 현대역**
14. 내 주인께서 잘못되었다고 말하기에는 종의 죄도 많구나.
  15.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을 보면 민망하여 여쭙우려 합니다.
  16. 새끼꼬기 잠시 멈추시고 제 말씀 좀 들어주소서.
  17. “집의 일을 고치시거든 종들을 휘어 잡으시고,
  18. 종들을 휘어 잡으시거든 상과 벌을 밝히시고,
  19. 상과 벌을 밝히거든 어른 종을 믿으소서.”
  20. 진실로 이리 하시면, 집안의 도가 저절로 일어설 것입니다.

**해석** 화자는 주인의 잘못도 있지만 종의 잘못도 있다는 점을 짚고 있다. 그러다가 상전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간청한다. 그 말은 이렇다. ‘상전은 종들을 휘어잡아 상과 벌을 밝힐 것, 그리고 어른 종을 믿을 것’이다. 이렇게 진실로 하면 화자는 집안의 도가 저절로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즉, 이 시는 마냥 종을 비판하지도, 상전을 칭찬하지도 않는다. 집안의 도를 살리기 위해서 각각의 본분을 지키지 않은 상황을 비판하고, 더 나은 모습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별감 : 사내 하인끼리 서로 존대하여 부르던 말.

\* 달화주 : 주인집 밖에서 생활하는 종들에게서 주인에게 내야 할 대가를 받아 오는 일을 맡아 보던 사람.

\* 수하상직 : “누구나!” 하고 외치는 상직군.

\* 마누라 : 상전, 마님 등을 이르는 말.

## 7.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 - 백수 광부의 아내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公無渡河
임은 그예 물을 건너시네	公竟渡河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墮河而死
가신 임을 어이할꼬	當奈公何

- S :
- BL :
- E :
- R :
- 수식 + 피수식 :
- 대비 :
- 개념어 :

1.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나타난다. (○, ×)
2. 다양한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풍류적 자세를 드러낸다. (○, ×)
3. 화자는 자신의 권유를 따르는 청자에 대해 비판적 어조를 띠고 있다. (○, ×)
4. 영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
5. '물'을 건너지 말라는 대목에서 대상에 대한 염려를 느낄 수 있다. (○, ×)
6. 2행의 '물'은 화자와 청자를 만나게 하는 매개적 역할을 하고 있다. (○, ×)

**시 해석 7.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 - 백수 광부의 아내**

- |                  |      |
|------------------|------|
| 1.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 公無渡河 |
| 2. 임은 그에 물을 건너시네 | 公竟渡河 |
| 3.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 墮河而死 |
| 4. 가신 입을 어이할꼬    | 當奈公何 |

- 현대역**
1. 임이시여, 물을 건너지 마세요.
  2. (그렇게 말했는데) 임께서 그 물을 건너시는구나
  3.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는데,
  4. 가신 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석** 이 시는 입을 여인 화자의 서글픔이 담긴 작품이다. 물을 건네려는 입을 만류하지만 결국 입은 떠났고 끝내 입은 죽었다. 이를 보고, 혹자는 ‘사랑(충만) - 이별(부재) - 죽음(종언) - 만남(영원)’이라 분석을 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보기>에서 주어져야 확인이 가능하다. 이 시는 ‘입에 대한 걱정, 입에 대한 안타까움, 입에 대한 슬픔’ 정도로만 해석해도 괜찮다.

## 8. 서경별곡(西京別曲) – 작자 미상

서경(西京)이 아즐가 서경이 서울히마르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닷곤 디 아즐가 닷곤 디 쇼성경 고외마른\*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여히므론 아즐가 여히므론 질삼뵈 브리시고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괴시란 디 아즐가 괴시란 디 우러곰 좃니노이  
 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구스리 아즐가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긴히썸 아즐가 긴히썸 그츠리잇가 나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즘른 히를 아즐가 즘른 히를 외오곰 녀신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신(信)잇든 아즐가 신잇든 그츠리잇가 나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대동강(大同江) 아즐가 대동강 너븐디 몰라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빅 내여 아즐가 빅 내여 노흔다 샤공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네 가시 아즐가 네 가시 림난디\* 몰라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널 빅에 아즐가 널 빅에 연즌다 샤공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대동강 아즐가 대동강 건너편 고즐여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빅 타들면 아즐가 빅 타들면 것고리이다 나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 쇼성경 고외마른 : 작은 서울을 사랑하지마는.

\* 림난디 : 바람난지.

- S :
- BL :
- E :
- R :
- 수식 + 피수식 :
- 대비 :
- 개념어 :

1. 시어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 ×)
2. 초월적인 인물을 통해 화자의 운명이 예고되어 나타난다. (○, ×)
3. 공간적 배경을 제시함으로써 시적 상황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 ×)
4. 임을 향한 신뢰를 사물에 빗대어 제시하고 있다. (○, ×)
5. '샤공'은 건너편에 위치한 '고즐'에 대해 질투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
6. '우러곰 좃니노이다'에는 사랑을 위한 여성의 적극적인 모습이 담겨 있다. (○, ×)
7. <보기> **페시형** '네가시 림난디 몰라셔'와 '것고리이다'에서 적극적이고 솔직한 당시 여인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겠어. (○, ×)